

제20호 1995년 7월

새터 어린이집



서울시 금천구 독산 1동 147-56
전화 867 - 8698 863 - 9633

차 례

자모의 글	—— 우리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며 살아요 ——	권영자	— 4
자부의 글	—— 나의 아버지 ——	김성주	— 6
교사의 글	—— 새터는 아름답게 기억될 거예요 ——	이애웅	— 8
아동교육	—— 어린이와 그림책 ——	이현경	— 10
가족소개	—— 현수네 이야기 ——	모형민	— 15
자활의 글	—— 미영이와 은주의 아이들과의 생활 ——	자활일지	— 17
건강상식	—— 아이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과 예방법 ——		— 19
아동관찰	—— 새터 아이들의 모습을 살짝 들여다 볼까요? ——	선생님들	— 22
알아봅시다	—— 왜 [금천]인가 ——		— 26
새터 이모저모	——	편집부	— 27
새터소개	—— 어린이집, 어린이학교, 교회 ——		— 28

우리 따뜻한 말한마디 건네며 살아요

권영자 (박가영 어머니)

언쟁

서로가 피부은
심장에 꽃히는 칼같은 말들
피투성이가 되도록
사정없이 서로를 난도질 하네

서로가 피부은
심장을 태우는 불같은 말들
불바다가 되도록
사정없이 서로를 불질러 대네
우리의 사슴속에 이미 벗어나
고삐 풀린 망아지 새끼처럼

제멋대로 사정없이 미쳐가는 말들
말 부딪쳐 무섭게 뒤틀리는 말
말 부딪쳐 무섭게 독해지는 말

칼로써도 불로써도 뒤엉킨 말이
풀리지 않아
억장 가슴이 무너져
마침내 슬픔으로 뒤범벅된
눈물로 폭발하네

양정자 시인의 아내일기 중에서

기대에 차있었다.

생활하면서 부딪쳐야 하는 많은 일들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우리 부부도 살아오면서 많은 싸움들을 했었다. 그 싸움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말이다. 무심코 던져버린 한마디 한마디가 서로에게 상처를 깊이 주게 되었고 그것들이 쌓여가다 보니 사랑이 남아 있기는 한건가? 하는 의심까지 할 정도였으니까.

다른 것은 생각이 나지 않지만 옥병언니(부모회-올바른 부부생활 강사)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당신도 힘들지만 나도 힘들어요” 라는 말을 기억한다. 무심코 던져지는 한마디 보다는 남편의 상황과 나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보이지 않는 서로에 대한 배려를 따뜻한 말한마디로 전하고, 자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서로가 말하며 살아 간다면 또다시 신혼시절로 되돌아가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지는 않을까?

싸움을 비난적이거나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앞으로 행복해지기도 어려울 것 같다.

아이는 부모의 거울인 것 같다.



면봉>님. 박가영 (만2세)

나의 아버지

김성주(지영아버지)

62년 3. 18 제주도 출생

제주도 서귀포에서 국문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88년 대학교 졸업

89년 결혼

90년 독산동 새한공업 입사(용접)

94년도 안산으로 이전 현재까지 새한공업에 다니고 있음

94년 8. 지영 탄생

이제 10개월 된 지영이가 아빠를 알아보고 반기면서 자신을 표현할 때 이제 아버지로서 지영이에게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 지 고민하게 된다. 나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무척이나 어려웠었지만 나의 삶에 있어서 커다랗게 위치지워지는 것이 아버지의 삶이다.

4남 3녀를 둔 아버지.

고등학교 때까지 늘 함께 했고 80년도 서울에 올라와서는 일년에 두번 정도, 현재는 일년에 한번정도 보는 것이 전부가 되었다.

나의 아버지는 목회자로서, 7남매의 아버지로서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아버님은 지금은 칠순을 넘기셔서 몇년 전에 목회활동을 그만 두셨지만 40여년을 개척교회만을 다니시면서 전도사 생활을 하셨다. 아버님의 목회활동의 원칙은 교회없는 시골마을에 안방예배로 시작하여 교회가 만들어질 때까지 3-4년을 활동하시는 것이다. 자신의 책임이 다했다고 생각하시면 다른 곳에서 다시 안방예배부터 시작하시는 헌신과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셨다. 이러한 아버님의 종교에 대한 소명의식이 나에게 있어서 사회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게 하는 큰 영향을 주었다.

아버지의 또하나의 모습은 7남매의 아버지이다. 제주도 전역에 살아보지 않은 마을이 없을 정도로 개척교회를 다니시다 보니까 자식들에게는 무관심하게

느껴질 정도로 “너희들의 삶은 너희들이 책임지라”며 전혀 관여하지 않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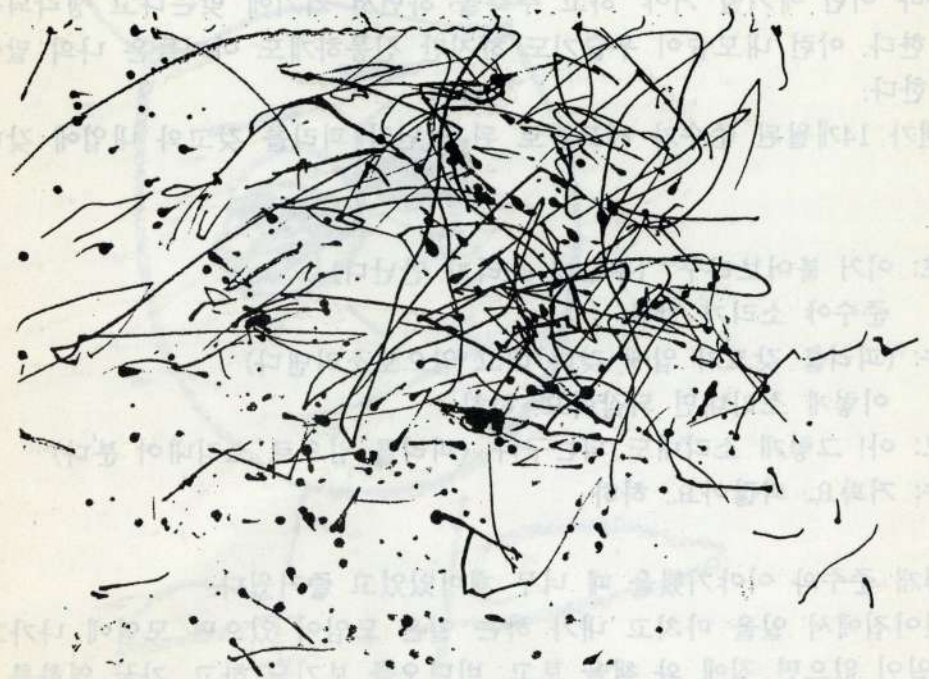
이러한 아버지의 영향이 현재의 나의 삶의 중요한 기둥이 되어 스스로의 생활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한다.

하지만 아버님을 바라볼 때 안타까웠던 것은 내가 고민하고 큰 결정을 내리기가 답답했을 때 같이 고민하지 못하고, 대화를 통해 서로 도움을 받는 일을 못했던 것이다.

어느날 갑자기 자식과의 관계를 풀기는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에 지영이와 항상 얘기하고 대화해서 지영이가 어렵다고 느낄 때, 힘든일이 있을 때 자상하고 친숙하게 같이 살아나가야 했다.

내주장만 하거나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지영이와 항상 서로 통하는 그런 아빠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서로 열심히 살아가고 존경받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되고 싶다. 지영이의 아빠로서 사회생활을 잘하도록, 씩씩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아내와 지영이와 함께 열심히 일하는 아빠가 될 것을 약속하며 이 글을 마친다.



박영민 (다함쉬반)

새터는 아름답게 기억될 거예요

이애룡 선생님

올해 내 나이 32살이다. 이젠 노처녀라고 사람들이 서슴없이 말한다. 집에서 은근히 구박이 심하다. 그래도 기죽지 않고 살아간다. 아줌마란 소리도 가끔씩 듣는다. 내가 어느새 이런 소리를 들을 나이가 되었을까?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는다. 난 여전히 꿈이 많은 20대로 착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정신차려야지. 나도 어엿한 30대인데.

엄마들은 나이가 많고 적건간에 모두 언니들 같다. 모두들 의젓하고 깨끗하다. 내가 모르는 어려움도 많이 있겠지만.

아기들은 나의 친구 같다. 아기들과 지내면서 '아기가 지금 나에게 하려는 말이 아마 이런 얘기일 거야' 하고 추측을 하면서 거기에 맞다고 생각되는 대답을 한다. 이런 내모습이 우습기도 하지만 신통하게도 아기들은 나의 말에 반응을 한다.

언젠가 14개월된 준수가 세모꼴로 된 장난감 피리를 갖고와 내입에 갖다 대었다.

이모: 이거 불어보라구? (부는데 소리가 안난다)

준수야 소리가 안나.

준수: (피리를 갖고가 입에 갖다 대고 입으로소리낸다)

이렇게 소리내면 되잖아요. 하하

이모: 아! 그렇게 소리내도 되는구나. (피리를 입으로 소리내어 본다)

준수: 거봐요. 되잖아요. 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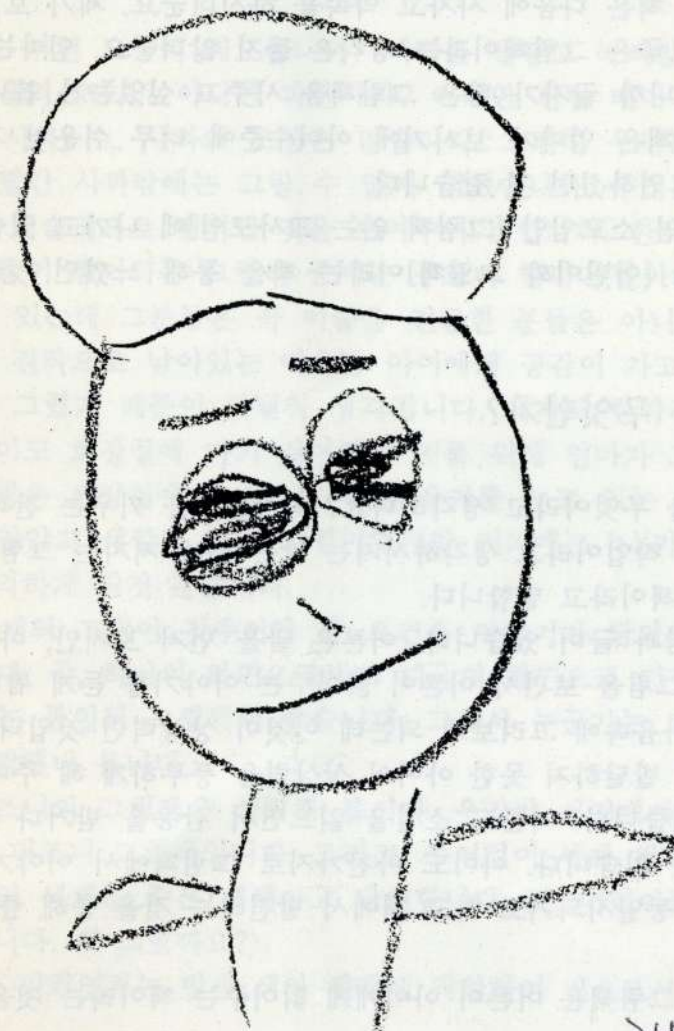
이렇게 준수와 이야기했을 때 너무 재미있었고 즐거웠다.

어린이집에서 일을 마치고 내가 하는 일은 모임이 있으면 모임에 나가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집에 와 책을 보고, 비디오를 보기도 하고, 가끔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한다. 휴일에는 산에 가고 서울을 헤매고 다닐 때도 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낸 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3년 8개월이 되었다. 짧게는 느껴지지 않는 세월이다. 가끔 그동안 행복하고 기쁘게 일을 했던가? 하고 물어본다. 자신있게 "그래" 하고 고개를 끄덕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다고 내 등을 토닥겨주고 싶다.

나와 함께 일하는 교사들의 지친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 24시간을 쪼개어 써도 시간이 모자란 엄마들의 바쁜 모습을 보면 또 안타깝다. 그렇다고 지치고 바쁘다는 이유로 교사와 엄마사이가 멀어지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가까운 사이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이를 함께 키우고 있기 때문에!

새터라는 곳이 모두의 기억 속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아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언제나 이곳을 기억할 것이다.



장영자 (사슴반)

어린이와 그림책

이현경 선생님

며칠전 서점에 간지가 오래 되어 쉬는 날에 교보문고에 갔습니다. 유아코너에는 아이들을 동반한 부모님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엄마들은 아이와 함께 학습지나 그림책들을 고르고 계셨습니다. 어떤 엄마는 아이가 엄마가 고른 책을 사지 않는다고 아이를 설득하고 계셨습니다. 아이가 다른 책을 집자 엄마가 고른 책은 다음에 사자고 약속을 하시더군요. 제가 보기엔 엄마나 아이가 고른 책이 좋은 그림책이라는 생각을 들지 않더군요. 엄마는 아이가 글을 깨우치고 있으니까 글자가 많은 그림책을 사주고 싶었는가 봅니다. 그런데 아이가 고른 그림책은 엄마가 보시기에 아이수준에 너무 쉬운것 같아서 자꾸 자신이 고른 책을 권하셨던 것 같습니다.

요즘 저는 지탁연 소모임인 [그림책 읽는 교사모임]에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함께 공부한 [어린이와 그림책]이라는 책을 통해 느꼈던 것을 소개할까 합니다.

1.그림책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그림책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독서능력을 키우는 전작업 또는 글을 깨우치는 첫 작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저자는 그림책은 아이가 상상력을 키우는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림책에는 그림과 글이 있습니다. 어른은 글을 먼저 보지만, 아이는 그림을 먼저 읽게 되죠. 그림을 보면서 어른이 읽어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마음속에 그려보게 되는데 이것이 상상력인 것입니다. 즉, 그림책은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아이의 상상력을 풍부하게 해 주며 그 속에서 기쁨을 느끼게 해줍니다. 어른도 소설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거나 주인공과 일치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이도 마찬가지로 그림책에서 이야기 속에 빨려 들어가 주인공과 동일시되기도 하고 책에서 발견하는 것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림책은 어른이 아이에게 읽어주는 책이라는 것을 간과해서

는 안됩니다. 물론 아이는 그림만 보고도 그 내용을 파악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위에서도 썼듯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상을 떠올리게 되고 자신만의 세계를 꾸며가게 되므로 그림책의 가치를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사람은 그것을 읽어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2.어떤 그림책이 좋은 것인가?

앞서 아이는 그림책의 그림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영상을 그려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질에 따라 아이가 그리는 영상의 질도 달라진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류,삼류 수준의 유형화된 영상의 자극으로 길들여진 어린이는 무엇을 보아도 그 영상으로 상상하고 받아들이는 선에 머물게 됩니다.

사과하면 어떤 모양이 떠오릅니까? 색깔은 빨갛고 녹색잎이 하나 달린 그런 사과를 떠올리셨나요? 아니면 파란사과? 아니면 한입 베어먹은 사과? 반쪽 사과? 썩은 사과? 사과의 모양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사과하면 마음속에 빨간 사과밖에는 그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그림의 질이 좋고 예술적으로 뛰어난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한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림책 중에는 부모나 할머니,할아버지가 손수 만들어 준 책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꼭 미술을 전공한 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책들이 걸작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아이에게 공감이 가고 자신을 잘 이해해주는 분이 그렸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게도 한가지 기억나는 그림이 있는데 아마도 화장실에 가기 싫어하는 저를 위해 엄마가 그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 그림은 화장실에서 바지를 벗고 엉가를 누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잘 그리지도 않았고 색깔도 없는 그림이었지만 거기에는 '나'가 있었기 때문에 오래도록 기억하게 된것 같습니다.

또, 그림책의 그림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이야기가 담겨진 그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의 화면으로부터 다음의 화면으로 긴장과 연결로 발전하고 변화하는 통일된 그림책이 좋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림책은 하나의 예술이라고 말했나 봅니다.

잠시 디즈니의 그림책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서점에서 가장 자주 만나게 되는 것이 디즈니 그림책입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사게 됩니다. 저자는 디즈니의 그림책의 색채를 죽은 색채라고 단언합니다. 또, 어린이들은 배신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디즈니의 만화영화는 빛과 색의 관계에 착안하여 빛으로서의 색의 움직임으

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테크닉이 뛰어나고 색과 빛의 움직임이 화려함으로써 원작에서 주는 감동이나 느낌보다는 하나의 쇼를 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디즈니의 만화영화를 그림책으로 옮겼을 때는 빛으로서 움직이는 색채는 사라지고 움직이지 않는 그림이 남기 때문에 죽은 그림이 되며, 디즈니에 의해 무참히 개작된 다이제스트판 그림책은 원작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원작의 내용을 줄이면 겨우 줄거리의 해설 정도로 그치게 되며 원작이 주는 맛도 느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디즈니의 그림책을 좋아합니다. 아직 비탄의 눈이 없고 원작이 따로 있는 줄 알지도 못합니다. 저자는 이런 명작 그림책을 주저없이 책꽂이에서 뽑아버리라고 합니다. 명작 그림책은 원작이 명작이지 그 자체의 책이 명작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3. 그림책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어른이 그림책을 고를 때는 흔히 그림이 귀엽거나 색이 밝고 예쁜 것을 먼저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그림이 얼마만큼 풍부하게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그것은 색보다는 모양에 있습니다. 색은 모양을 효과적으로 받쳐주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귀엽거나 화려한 색채에 눈이 팔리면 정작 이야기의 깊이를 파악하지 못하게도 되는 것이죠.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문장입니다. 그림책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어찌되었는가라는 것이 조리있고 아름다운 문장으로 쓰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그림책의 이야기를 귀로 듣게 되는 언어체험은 표현력의 기초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므로 테마는 등장인물을 통해서 일관성있게 서술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림책을 고를 때는 귀로 들어보아 차례차례 이미지가 떠오른다면 좋은 그림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의 입장에서 고를게 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그림이 이야기를 하는 그림책을 주도록 합니다. 또, 아이의 입장에서 쓰여진 그림책을 선택함으로써 친근감으로 그림책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아이는 동물과 차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가지 차에 대한 그림책을 사줍니다. 이것은 사물을 인식하도록 하는 사물 그림책으로써 정확하게 사물을 표현하고 있어야 합니다. 동물이라면 동물 나름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어야 하고, 차는 각각의 기능과 모양이 나타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며칠전 어린이집에서 여러동물의 소리가 녹음된 테이프를 들려주었더니, 동물들의 엄청난 소리에 깜짝 놀랐던지 무서워하면서도 듣고 싶어했습니다. 동물

원에 가서 코끼리의 엄청난 크기와 원숭이의 엉덩이와 곰을 본다면 더 없이 좋겠지요. 그리고 시골에 가서 작고 귀여운 개구리가 어떻게 그런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지 안다면 더욱 좋구요. 우리아이들에게 동물그림책이 소중한 것은 동물이 생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동물이 귀엽고 예쁘게 그려져서 원래의 모양에서 벗어난 그림보다는 생명력을 느끼도록 표현한 그림책을 주도록 합시다.

두살 유아에게 저자가 권하고 있는 적절한 그림책을 소개하자면 아이의 일상생활 경험을 담은 책이나 사물 그림책(극히 초보적인 지식의 그림책), 동요나 시가 있는 그림책, 생생한 언어를 구사한 문장이 있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아이들이 어떻게 시를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시를 읽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시의 언어의 리듬을 들을 줄 알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직접 해봄으로 느꼈습니다. 그림책에 표현되어 있는 경쾌한 리듬이나 시적인 표현등을 계속 읽어주다보면 아이는 처음에 흥미있어했을지도 모르지만 나중에는 즐거워할 것입니다.

4. 그림책을 읽어주는 방법

아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동안 아이는 이야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책장을 넘기기도 하고 이진뒤야라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어른은 “가만 있어봐. 다 읽으면 엄마가 넘길게”하지는 않는지요. 아이는 벌써 그림을 읽고 다음장에 기대를 하고 넘어 가려는데 엄마는 아이가 끝까지 듣기를 권합니다. 또, 다 읽은 후에 질문시간을 갖습니다. 곰이 몇마리였니? 누구는 어떻게 됐니? 그렇게 하면 되니? 하면서 꼭 확인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엄마도 있습니다. 또, 그림책은 교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행동이 좋으니 나쁘니 하고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설을 읽고 나서 매번 독후감이나 질문에 답해야 한다면 곤욕스러운 것처럼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책은 즐거움을 주는 책이어야 합니다. 그림책을 읽고나면 그대로 두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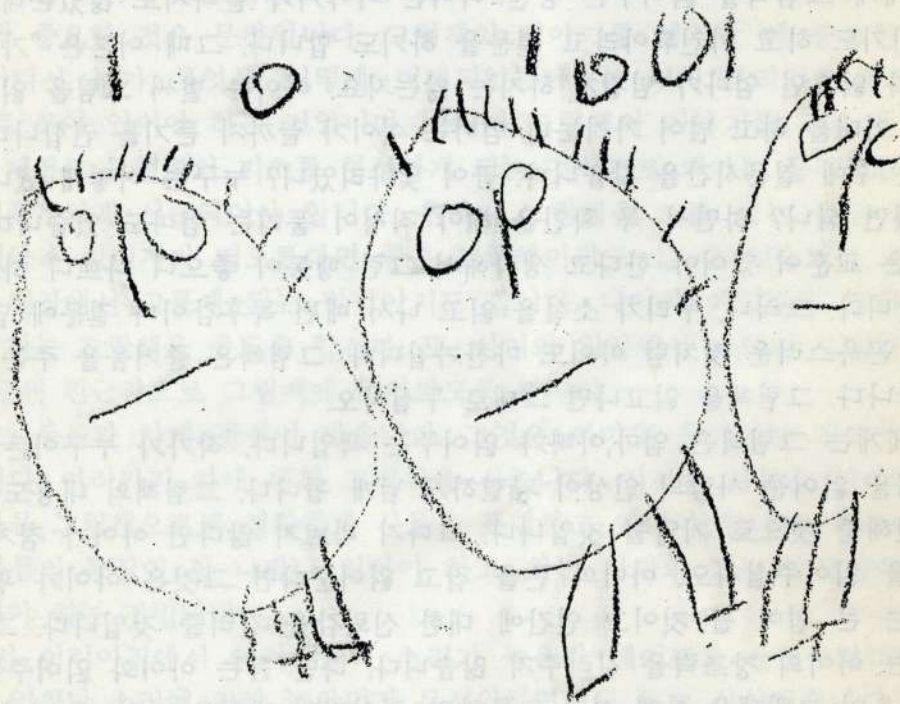
아이에게는 그림책은 엄마,아빠가 읽어주는 책입니다. 작가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책을 읽어준 사람의 인상이 강렬하게 남게 됩니다. 그림책의 내용도 그 사람이 전해준 것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다지 바쁘지 않다면 아이가 잠자기전 그림책을 읽어주십시오. 아이의 손을 잡고 읽어준다면 그것은 아이가 평생을 살아가는 큰 힘이 될 것이고 인간에 대한 신뢰감을 길러줄 것입니다. 그림책 그 자체는 아이의 창조력을 길러주지 않습니다. 다만 듣는 아이와 읽어주는 어른의 마음이 그림책을 통해 서로 교류하면, 정신적인 체험을 가질 때 커다란

창조성이 발휘됩니다. 무릎에 앉혀 놓거나 손을 꼭 잡고 읽어주었을 때 엄마, 아빠의 목소리가 포근히 감싸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텔레비전의 소리나 테이프를 들려주는 이야기를 좀 줄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림책을 읽어주기 전에 부모가 여러번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읽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아이의 입장에서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외국 그림책이라면 번역이 자연스럽지 못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시고 너무 긴 내용을 써 놓았다면 엄마의 말로 좀 줄여서 아이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해하도록 해 주세요.

지금까지 어린이와 그림책이라는 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자랄 때는 지금처럼 많은 그림책이 없었습니다. 또 많은 이야기도 듣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책도 공해라고 합니다. 서점에는 엄마들을 현혹하는 어린이 영어책이나 귀엽고 예쁘게 기교를 잔뜩 부린 책도 많습니다. 한권을 선택하더라도 우리아이에게 좋은 그림책을 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혹 우리아이가 수준에 맞지 않는 어린 그림책을 좋아하더라도 그것은 아이 나름대로 소중한 것이기에 그런다는 것을 이해합시다.

우리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부모가 됩시다.



강영기 (나눔반)

■가족소개■

현수네 가족 이야기

모형면 (현수 아버지)

보잘 것 없는 글솜씨를 새터 가족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니 부끄러울 뿐입니다.

독산1동 군인아파트 1동 103호.

이곳은 저와 아내, 말썽꾸러기 현수와 재롱둥이 준수까지 네 식구의 보금자리입니다. 제가 직업군인으로 근무하고 있기에 군에서 약간의 입주금을 받고 10년동안 임대해준 것입니다.

88년 2월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만남의 횟수가 더해 갈수록 저희들의 사랑도 무르익어 갔고 만나면 커피 한잔에 사랑의 밀어를 속삭이며 젊음을 만끽하던중 같은 해 5월 저는 현역 입대를 하게 되었고 강원도에서 이곳으로 전출와서 근무중 91년 6월 식을 올리고 살라는 부모님들의 말씀을 뒤로하고 결혼식 자금은 저희들 손으로 마련한 후 올리겠다고 말씀드린 후 동거에 들어갔습니다.

93년 1월 1일 17시 25분.

저희들의 꿈과 소망을 한몸에 받고 장남 현수가 이세상에 출생 신고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곤히 잠들어 있는 현수의 얼굴을 보면서 '결혼식을 더 늦기 전에 올려야겠구나' 생각하고 양가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고 부대에 허락을 얻은 후 93년 1월 1일 부대에서 진중 결혼식으로 성대하지는 않았지만 순조롭게 끝이 났습니다.

젓먹이 현수 때문에 서울 근교에 있는 유원지에서 1박 2일 보내고 올 작정이었지만 유별난 친구들 때문에 느닷없이 숙박업소에서 하룻밤 자고 오는 것이 신혼여행의 전부였습니다. 친구들중에 제일 먼저 결혼식을 올렸다는 죄(?)하나만으로 피로연 장소에서 이 핑계 저 핑계 제 발바닥을 두들기면서 소주와맥주를 쉬지않고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시면 마신다고, 마시지 않으면 안 마신다고 때리고 피로연이 끝이 났을 땐 정말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떠 보니 눈에 익지 않은 곳이었고 옆에는 지친듯한 모습으로 아내가 누워 있었습니다. 깨어서 물어보니 지난 밤에 술에 취해서 휘청거리고 걸음걸이는 절름발이고 정말 가관이라 하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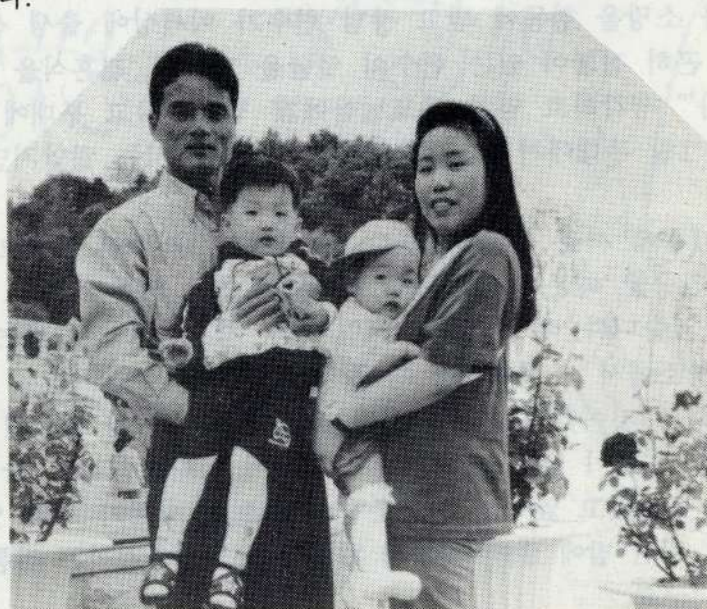
발바닥 통증으로 3일간 고생하고 처가집에 갔을 때 일은 지금도 생각하면 저절로 웃음이 납니다. 그렇지 않아도 친구들에게 당한 기억이 생생한데 처남들과 형님(동서)들의 얼굴을 떠올리니 정말 압담하더군요.

‘어떻게 하면 조용히 끝낼 수 있을까’ 하고 머리를 짜내던 중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술자리 들어 갔을 때 저는 몇잔의 술을 거푸 마셔 댔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을 때쯤 예상대로 적군(?)들이 행동을 시작하더군요. 도복 끈을 가져오더니 누군가 제발을 들어올리길래 묶이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등은 방바닥에 대인 채로 눈앞에 보이는 처남들과 형님에게 발길질을 했더니 벽과 현관문에 가서 부딪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말리려고 오시는 장모님도 제 발길질에 턱을 맞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고식은 끝이 났지만 허리가 아프다, 턱뼈가 이상한 것 같다며 웃으셨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정당방위 차원에서 한 행동이란걸 말씀드렸습니다.

세월은 흘러 둘째 준수가 태어났고 하루가 힘들었지만 아이들의 재롱때문에 항상 웃고 지내고 있습니다. 장래 소망은 모두 건강하고 큰 욕심부리지 않으며 화목하게 살아가는 웃음을 잃지 않는 가정을 꾸며 나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 가는 것입니다.

끝으로 어머니란 대역을 훌륭히 소화해 내시는 새터 놀이방 선생님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활일기■

미영이와 은주의

아가들과의 생활

미영이 (38 일)

4.4.화

처음 나온 자활!

내가 과연 이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을까? 무조건 열심히, 성심. 아이들이 낮가림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따라주어서 너무 기분 좋았다. 아이들의 맑은 눈을 보면 내마음까지 깨끗해지는 것 같다. 참 빨리 이름을 외워야겠다.

5.17.수

한주 빠지고 나서 오니까 아이들이 더 반갑고 더 예뻐다. 이제 아이들도 나르 좋아해 주는 것 같아 기분 좋다. (단오, 지영 제외)

단오, 지영이와도 친해지도록 노력해야지. 용재는 내가 오면 거의 잠만자서 잘 놀지 못했다. 오늘 약속때문에 끝나기 전에 가야 될까봐 걱정했는데 뒷정리까지 도와 드릴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다.

5.26.금

오늘 와서 가장 달라진 아이는 단오와 지영이었다. 단오는 저번에 내가 가까이 가기만 해도 울더니 오늘은 나를 보고 웃음까지... 너무 기뻐다. 그리고 지영이는 많이 큰 것 같다. 그 전에는 앉은 모습으로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물건을 붙잡고 서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6.15.목

오늘 새로운 것은 정윤이와 가영이가 유아반으로 갔다는 것과 새로운 아이가 한명 들어왔다는 것이다. 새로운 아이와는 언제쯤 친해 질 수 있을까?

준수가 제법 잘 걷는 것 같다. 저번에는 그렇게 걸어보라고 해도 안 걸더니. 용재도 빨리 걸었으면 좋겠다.

원 (경 3학년)

4.18.화

지난번에 비해서 오늘은 매우 조용하게 지나 간 것 같다. 아이들이 소리도 별로 안지르고 많이 싸우지도 않아서 조금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아직 아이들한테도 익숙하지 못하고 어떤 식으로 얘기해야 할 지 잘 몰라서 때때로 당황스러운데 이런 문제를 꼬마라기에서 다루어 보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데 여기에 오면 왜 자꾸 졸리는 걸까? 유아반에 오면 안 그럴 줄 알았는데.

5.2.화

하면 할 수록 아이들 대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 여기오기전 기분이 별로 안 좋을 때에는 자꾸 밝은 기분이 되도록 노력하곤 하는데도 막상 웃고 재미있게 노는 아이들 앞에서 내 표정이 너무 굳어있는것 같아 미안한 생각이 든다. 그리고 재육이나 현수는 가끔 어떻게 대해야 할 지 난감하다. 받아주기 힘든 행동을 할 때는 무시하고 모른척 상대해주지 않기도 하지만 좀 더 좋은 방법으로 고칠 수 있게 해주고 싶기도 하다. 내 행동에서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도 든다. 이렇게 다양한 아이들에게 일일이 애정을 갖고 바르게 대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다.

5.9.화

일주일 새에 못보던 얼굴이 몇명 늘었다. 쌍둥이 남현이랑 남영이는 누가 남현이고 누가 남영인지 몰라 그냥 대충 불렀는데 자꾸 그러면 자기이름이 혼동될 것 같다. 다음에는 확실히 이름과얼굴을 기억해야지. 마지막까지 남은 희만이는 참 씩씩하다. 보기에는 정말 튼튼하게 생겼는데 커서 운동선수를 하면 잘 어울릴 것 같다.

5.16.화

오늘은 아이들이 적어서 그런대로 수월했던 것 같다. 좀 일찍 왔으면 아이들 피랴는 데 같이 있을 수 있었을 텐데 거의 다 끝난 다음에 도착해서 별로 도움이 안됐다. 아이들이 서로 싸우기만 해서 난감하다가도 가끔씩 양보하고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면 정말 천사같다는 생각이 든다.

■건강상식■

아이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과 예방법

이 글은 지난 3월 부모회의때 구로위원회의
임상혁원장님께서 아이들의 건강에 대해
강의 하신것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아토피성 피부염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는 아이는 목욕을 자주 시키면 안좋다.
목욕을 시킨후 베이비오일이나 크림을 발라주어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는다.
땀을 많이 흘리면 좋지 않으니까 땀 흘린 뒤에는 꼭 씻겨준다.
습도는 55~60%가 적당하다.
여자아이들인 경우 밀이 선천적으로 기형인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소변본 후 닦아주고 연고를 발라준다.
아기들에게 좋은 연고는 더마톱 이나 더모베이트이다.

2. 두드러기

만성두드러기 - 계란,우유,복숭아,닭고기,간장,생선들이
두드러기를 많이 일으킨다.
만성이 될 경우는 음식을 먹지 않아도 두드러기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한냉두드러기 - 온도차가 심하면 일어나는 두드러기로 겨울철에 더 심하다.
알레르기성 질환은 나이가 들면서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

3. 기관지

기관지 안좋은 아이가 있을때는 다음 사항들에 유의한다.

- 1) 어른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 담배연기는 기관지에 가장 안좋다.

- 2) 감기에 주의한다.(독감예방주사를 꼭 맞춘다)

- 3) 물을 많이 먹이고 가습기를 틀어준다.

- 4) 집 먼지에 각별히 유의하고 환기를 잘 시킨다.

- 5) 예방하려면 청소를 자주하고 특히 카펫 청소를 자주한다.

베게속은 나일론 옷으로 한다.(자주 빨 수 있고 집 먼지벌레가 번식하지 않는다.)

이불보를 자주 땀다.

4. 중이염

귀는 축축한 것이 정상이다.

중이염에는

화농성 중이염

바이러스성 중이염- 감기로 인한 경우도 포함된다

중이염이 오는 가장 큰 원인은 귀지를 파는 것이다.

귀지를 자주 파 주는 것은 좋지 않고 딱딱해 질 경우에도 그냥 놔두어도 상관없다.

귀지를 팔 경우에는 알코올 1/2 + 물 1/2 의 비율로 타 면봉에 찍어서 닦아주는 것이 좋다.

5. 갑자기 우는 경우

다른 이상이 없는데 아기들이 밤에 자다가 갑자기 우는 경우는 배에 가스가 차는 경우일 때가 많다.

유의하려면 우유 먹일때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배를 자주 쓸어주며 심할 경우에는 관장을 해 주는 것도 방법이다.

6. 배아픈 경우

다른 이상이 없는데 배가 아플때는 주로 변비로 인한 것이 대부분인데 아이들이 변비에 걸리는 것은 아이들은 장이 짧기 때문이다.

이때는 배를 문지르고 관장을 한다.

7. 설사

이상인 있는 똥은

- ① 물똥일 경우

- ② 피가 섞여 나오는 똥

- ③ 코가 섞인 것처럼 끈적거리는 똥

원인은 분유에 의한 알레르기가 가장 많은데 이런 경우는 밀루파 등으로 바꾸어 먹다가 조금 나아지거나 괜찮아지면 다시 먹인다

8. 축농증

축농증은 알레르기성 비염과 겹치는 경우가 많다.

축농증이 비염과 함께 있을 경우는 비염 치료를 완전히 하여야만

축농증 수술을 해도 효과가 있다.

9. 기 타

* 아이들에게 안전한 해열제

- 1) 아세트아미노펜 - 소염효과는 없고 해열효과만 있다.

타이레놀, 써스펜좌약

- 2) 부루펜 - 소염, 해열효과가 동시에 있다.

2세 이하는 확실치 않고 2세이상은 안전하다.

* 경기

6개월 전이나 4세이후의 경기는 위험하다.

꼭 체온을 재고 38도가 넘으면 옷을 다 벗긴 후 찬물보다는 섭씨3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마사지를 해준다.

2세가 지나면 해열제를 써도 무방하다.

* 열

평소보다 잘 안먹거나 잘 안놀면서 나는 열일 경우에 '열이있다'고 한다. 미열이 있으면서도 먹고 노는것이 이상이 없으면 괜찮은 것으로 본다.

* 주사

주사를 맞는다고 병이 빨리 낫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오히려 주사없이 치료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더 좋다.

* 편두통

스트레스성질환이다. 커피/치즈/크래커/지방질음식/버터/땅콩등의 음식은 편두통을 일으키는 음식으로 편두통이 있는 사람은 위의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다.

새터 아이들의 모습을 살짝 들여다 볼까요?

정명자 (92. 9. 7)

책을 좋아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노래도 잘하고...

2층에서 툭 튀죠. 왜냐하면 가장 큰 언니거든요.

손님이 오면 아이들을 대표해서 인사를 도맡아 하는
2층의 얼굴입니다. 이쁜도 잘 뛰워서 새로 온 아이도
몇분만 지나면 사람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선생님들도
분간하기 어려운 쌍둥이 형제도 굼똥 얼굴과 이쁜을
알았어요. 머리를 예쁘게 빗어주면 아주 좋아해요. 마음에 들 때까지 머리를
직을 합니다.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해서 잘 때는 옛날 이야기를 꼭 들어
야 잠이 들지요. 선생님들과 이야기가 가장 잘 통해서 위로가 되지요. 아직
은 어린 네살이지만 어른같습니다.



김선명 (93. 2.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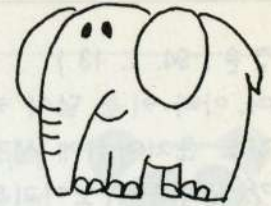
언제부턴가 어린아가의 티를 벗어버리고 어여쁜 숙녀로
변했어요. 고집부리고 떼쓰는 것도 많이 없어졌답니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노래만 부르면 “나,
나”하며 자기 이름을 넣어 부르기를 원해요. 이름을
넣어 노래를 불러주면 쑥스러워하면서도 아주 좋아해
요. 가위 오리기를 잘하고 같이 공부를 할때는 차분히 앉

아서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옆에서 건드리면 아주 싫어합니다.

7월부터 신명이가 오빠가 다니는 둘다섯 탁아방으로 가요. 새터에서는 언니였
는데 둘다섯에서는 막내예요. 언니, 오빠들한테 사랑받는 신명이가 되었으면
해요. 새터에서 간 면지랑, 재복이랑 그리고 오빠가 있어서 든든할 거예요.

김수진 (93. 3. 23)

수진은 3층 병아리반 때부터 새터에 다녔어요.
사람을 잘 따르고 굼똥 친해져서 자학 선생님들
에게 인기가 많아요. 한동안 수진은 가꾼 쉬를
할 때 남자들처럼 서서했어요. 아직은 여자한 남
자가 다른 것을 잘 모르지만 조금씩 성개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싫고 좋은
게 명확해서 선생님이랑 노래할 때 싫은 노래가 나오면 “아니” 라고 하여 손
짓을 해요. 집중을 잘하고 물감놀이를 좋아하고 그네도 아주 좋아합니다.
과자도 잘 나눠먹지만 말없이 자기 것을 건드리면 무지 화를 내고 속상해 한
답니다.



김세준 (93. 5.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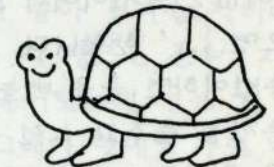


세준이는 수진처럼 같이 3층에 있다가 내려왔어요. 쉬는
아주 잘 가는데 아직 응가는 화장실에서 하기가 싫은가
봐요. 새터어린이집의 좁은 앞마당에 나가기만 하면 맨발
로 이공목 저공목으로 뛰어다녀서 선생님 애를 먹어요.
조금 야단이라도 치라하면 눈웃음을 보내거나 애교를 부
려서 선생님을 웃게 만들지만 따끔하게 혼내고 나면 웃음이 사라지죠.

식사시간에 세준이는 아무거나 잘 먹어요. 두 그릇이나 먹고 나중엔 선생님
뺑까지 달라고 해요. 뽀뽀 노래를 아주 좋아해서 잠자기전에도 부르곤 해
요. 아마 자기를 재우는 자장가인가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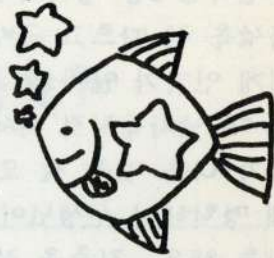
최기영 (94. 1. 20)

웃는 모습이 귀여운 가영이는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해
우유병을 달고 다녀 이모에게 잔소리를 자주 듣죠.
머리카락이 작았자라 차머를 입혀 놓으면 웃음을
자아내게 하죠. 병아리반에서 제일 대장 노릇하며
동생들 잘 때 인사도 도맡아 하고 동생들도 챙겨주고 썩썩했는데 2층언니,
오빠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오면 울고 올라오는데 언니에서 동생되는 것이 싫
은가 봐요. 가영아 기죽지 말고 썩썩하게 놀아라.



양 정운 (94. 1. 13)

언마, 아빠 키를 닮아 키가 큰 정운이는 영국 생긴
생김도 큰지랄하게 생겼어요.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약간 무뚝뚝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 커다란 눈으로
많은 말을 하곤 해요. 갑자기 이모에게 와서 고개를
까꿍하며 함박 웃음을 짓고 등에 매달려 안아달라고
하기도 해요. 이모가 문을 달아달라고 하면 달아주고
동생에게 우유병, 라자를 잘 갖다주는 의젓함이 있어요. 가끔 화가 나면 친구
나 동생을 때릴거나 물기도 하지만, 18개월이 되어 다들워반이 된 정운이를
자주 볼 수는 없지만 웃지않고 잘 적응하는게 아주 기특해요.



이 승범 (93. 9. 20)

“애! 승범아!” 현경이 선생님의 목청높은 소리. 무슨소
니인가 가보니 부엌 살림에 관심이 많은 우리의 살림
꾼인 승범이가 어느새 칼을 들고~~ 어머머, 웬 칼부
넌? 당장 그날로 부엌문에는 밖에도 고리가 생기게 되
었습니다. 17개월의 가장 어린 개월수로 들어와서 선
생님들의 사랑을 독차지 한 승범이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 하루종일 울어서 언제 적응하나 했었는데 지금은
아주 씩씩해요. 튼튼하고 잘 생기고 특히 뚱뚱뚱하
고 애교도 만점이어서 3층의 애용이모나 선생님들도 ‘승범이같은 아들 하나 있
었으면....’ 한답니다.

승범이하면 춤을 빼놓을 수가 없지요. 빠른 음악이 나오면 엉덩이를 쭉 빼고
깡충깡충 춘추고 느린 음악이 나오면 두 손을 쭉 빼고 천천히 도는 ‘장녹수’
춤을 추지요. 때로는 장녹수가 들고 있는 흰 천대신 걸레를 들고 와서 추기도
한답니다. 그런데요, 지금 승범이에 대한 가장 큰 바램은 쉬를 가리는 거에
요. 쉬소리도 하고 형들 흉내도 잘 내면서 막상 쉬하자 하면 “싫어”하면서 도
랑가버리거든요. 때가 안된건지 ... 승범아 쉬 가리자 응?

김 지수 (93. 6. 18)

창으로 바람이 불어서 천장에 붙여둔 모뎀이 흔들리며
서로 부딪쳤다. 그걸 보면서 지수가 하는 말. “뽀뽀뽀
뽀뽀뽀 뽀뽀뽀 친구!”

언마의 반짝반짝 빛나는 예쁜 눈과 아빠의 멀썩직한
입을 닮은 지수는 이렇게 감수성이 예리하고 착한 아이
입니다. 유난히 키가 커서 모르는 사람은 큰형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지요. 지수는 아이들을 귀찮히고
때리는 것을 못났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건 아이들이
귀찮히지도 않고 모두 예뻐하거든요. 언니, 오빠들이 귀여워하는 것도 싫어하
는 새침때기 영선이기도 지수라는 알고 뽀뽀해주고 아주 잘 논답니다. 잘안기
고 애교 잘 부리던 지수가 요즈음은 좀 변했어요. 선생님들의 손길을 필요
로 하지 않거든요. 우유병을 떼면서 부티요. 독립심이 큰 것 같아 대견스러
우면서도 좀 섭섭해요. 그런데 아침에 언마하고도 “안녕”하고 잘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떨어지면 굶방 잘 늦면서도 언마를 토크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더욱
더 예쁜 지수가 될 거예요.



모 준수 (94. 4. 13)

졸리면 우유를 먹으며 스르르 잠드는 처진 눈이 순해
보이는 순둥이.

탁아방의 장난감 바구니를 다 쏟아 놓기를 잘하며 불
적 바구니를 쏟아서 자동차를 잘 만드는 준수. 자기보
다 한달 늦은 아이가 새로 들어왔는데 걷는 걸 보고
분발해서 걷기 시작했어요. 그래야 텃세도 부릴 수 있
거든요. 그네에 서서 웃기도 하고 동생도 태워 줘서
칭찬해주면 으쓱으쓱 해지나봐요. 흐뭇한 웃음을 짓는
모습을 잘 보게 되지요. 언니들이 2층에 내려간 뒤
용재와 같이 병아리방에서 제일 큰 오빠가 되었어요.



왜 衿川(금천)인가

금년 3월 1일에 구로구에서 분구된 우리구의 이름이 금천이다. 많은 구민이 왜 금천이라 했는지 관심이 많다.

삼국시대에는 금천지역을 백제가 다스렸다. 그러나 백제시대의 지명은 아쉽게도 찾아볼 수 없다.

그후 4세기 말에서부터 5세기 중엽까지 고구려땅이 되었을 때는 잉별노현으로 불리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고, 다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시대인 경덕왕 16년(757년)에 곡양현으로 개명됐다.

이때까지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금천이란 지명과 관계가 없었으나 고려 태조 23년(940년) 금주로 바뀐 때부터 옷깃 금(衿)자와 인연을 갖게 된다.

고려 때는 내내 금주로 불리다가, 조선 태조 13년(1413년)에 금천현으로 개칭된 이후 정조 19년(1795년) 시흥현으로 변경될 때까지 한때 금과현, 금양현으로 불린적이 있으나 380여년간 금천현이었다.

지금부터 꼭 200년전인 1795년에 시흥현으로 개칭된 후 고종33년(1895년)에 경기도 시흥군으로 불리다가 1963년도에 서울특별시로 편입되면서 영등포구 가리봉동, 독산동, 시흥동으로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금천현의 관아가 지금의 시흥5동에 있었으며 이 지역 명물인 수령 800년된 은행나무 2그루는 관아의 정원수로 식재되었으며 지금은 찾아 볼 수 없지만 두 은행나무 사이에 흐르는 계곡위로 석교가 있어 한층 운치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금천현의 행정관할 구역은 현재의 구로구, 영등포구, 관악구, 동작구, 안양시, 광명시 소하리 등 6개면, 59개리로 이곳이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중심지였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의 금천구 명칭은 한층 뜻이 있다 하겠다.

금천구 소식 제 3 호

새터 이모저모

- 1월 - 부모회에는 어린이집의 신년계획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 오랫동안 계시던 전미경 선생님이 어린이집을 그만 두시고 결혼아동을 돌보는 사랑의 교실을 맡게 되었어요.
- 2월 - 2월부터 영아전담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였어요. 3층은 5개월부터 17개월까지, 2층은 18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아이들이 있게 되었어요. 김상선 선생님이 그만 두시고 2층에는 3층의 이현경 선생님과 새로 김옥희 선생님이 오셨어요.
- 부모회에는 총회를 해서 임원을 의무제로하고 임기를 6개월로 하였어요. 회장은 차정원(명지엄마)씨, 부회장은 배경미(진형엄마)씨, 총무는 염수미(송범엄마)씨, 친교부장은 박경숙(서연엄마)씨가 선출되었답니다.
- 매월 세째주 화요일에 구로의원에서 건강검진을 하기로 하였어요.
- 3월 - 부모회에는 구로의원 원장님이 오셔서 아이들의 건강에 대한 강의를 하였어요. 그리고 서연이가 그만 두게 되어서 친교부장을 권영자(박가영엄마)가 하게 되었답니다.
- 3월 12일 3.8여성대회가 이화여대에서 있었습니다.
- 4월 - 8,9일에는 새터 바자회가 있었어요.
- 23일에는 소풍을 영릉으로 갔다 왔어요. 많은 가족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줄줄 흐르는 시냇물과 파릇한 새싹과 맑은 공기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 3층에 오영미 선생님이 새로 오셨어요.
- 5월 - 부모회에는 좋은 부부관계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배옥병씨가 강의를 해주셨어요. 평소에 아이들과 남편을 대하는 태도를 반성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었어요.
- 건강검진시간에 빈혈검사를 했는데 새터 아이들은 모두 튼튼하대요.
- 6월 - 부모회때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맞이하여 지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박석민씨가 오셔서 아주 쉽고 재미있게 강의해주셨어요.
- 이애용선생님이 6월말로 어린이집 일을 그만 두셨어요.

새터를 소개 합니다

◆ 새터 어린이집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보육대상 : 생후 5개월부터 36개월까지

보육시간 :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은 6시)

◆ 새터 어린이 학교

맞벌이 부부의 자녀와 공부방이 없는 국민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곳입니다. 교과 학습지도 뿐 아니라 글쓰기, 피아노, 미술, 체육 등 예체능 활동도 합니다.

꿈나무 교실 - 국민학교 1,2,3학년 종일반 오후 1시부터 6시

참나무 교실 - 국민학교 4,5,6학년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

◆ 새터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 공동체로 지역주민의 교회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주일예배 : 일요일 오전 11시

주일학교예배 : 일요일 오전 9시 30분, 오후 2시

노동청년회 :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수요성경공부 : 매주 수요일 오후 8시